

설총 화왕계의 가치와 스토리텔링

이 창 식*

- I. 머리말
- II. 화왕계의 풍자적 가치
- III. 화왕계유산의 풍자 스토리텔링
- IV. 맺음말

국문초록

설총이 지은 <花王戒>는 김부식『삼국사기』에 기록되었는데 할미꽃 등 전설 이미지를 바탕으로 하였다. 신문왕이 무료함을 달랠 놀이로 설총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청하였고 설총은 그 놀이 자리에서 <화왕계>를 들려주었다. <화왕계>는 간신을 멀리 하고 충신을 가까이 하라는 뜻을 빗대어 설법한 한국 최초 창작형 풍자설화이다. 설총의 의도를 깨달은 신문왕(외적 화자)은 후세의 임금들에게 寓意的 교훈이 되도록 글로 남기라고 명령할 정도로 개입적 ‘이바지’ 역할을 하였다.

<화왕계>의 1차 가치는 諷諫 원리의 출발점이다. 비유의 원천은 사물의 의인화 빗대기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데 있다. 불교의 화두를 서사 설법 방식으로 들려주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理義, 곧 원효의 대승기신론의 和靜과 관련된다. 2차 가치는 전달 방편으로 우의수법을 통해 왕도 정치의 大丈夫論을 드러내고 있다. 표면적으로 정치적 대립과 갈등의 상극지점에 대해 빗대어 설득하기를 통해 상생적 유교정치의 논법이다. 이면적으로 균형과 태평을 끌어들이 납득하기를 통해 실행적 이념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유교식 땅설법의 스토리텔링의 사례이기도 하다.

원효-설총 이야기 방식은 당대 정치현실의 극복과 寓意深志를 실천하는 데 있다. <화왕계> 후대 스토리텔링도 聖俗의 둘이 아니고(不二), 시비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는 양상이다. 앞의 두 가치를 살려 스토리텔링으로 설총-신문왕 당대 이야기로 확장한 것이 정호완본 ‘설총의 꿈’(공연용 제목)이다. 정호완본 ‘설총의 꿈’은 설총의 바른 ‘이의’의 전개가 신문왕 총기의 ‘이바지’ 역할과 맞물려 서사가 전개된다. 물론 <화왕계> 풍자 골격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자 상생-화쟁 정신적

* 세명대학교 미디어문화학부 교수

으로 구현하는 방식이다. 다만 움직임 국면에서 웃음과 재미의 빗대기 요소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주제어 ● 설총, 화왕계, 신문왕, 풍간 원리, 대장부론, 우의심지, 설총의 꿈

I. 머리말

신라 설총(657~746)은 어려서부터 經書와 학문에 널리 통달하였다고 한다. 차자표기법 吏讀를 집대성하고 오경을 우리말로 해석해 유가적 가치관인 修己治人의 가치관이 신라사회에 널리 자리 잡게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신라十賢’의 한 사람으로 꼽히며 아울러 통일신라 초기인 신문왕 당대의 비중 있는 인물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설총전승’의 가치론을 전제로 창작된 스토리텔링 방향까지 논의하고자 한다.

설총은 원효(617~686)와 신라 무열왕의 딸 요석 공주 사이에 태어났다. 그는 원효의 아들로서 경서 이두식 읽기로 유학을 진흥시킨 인물¹⁾로 평가되었으며, 더구나 <花王戒>라는 명문을 써서 한국문학사의 특이한 경지²⁾를 개척하였다. <화왕계>는 김부식(1075~1151)의 『삼국사기』 열전 제6「설총」조에 삽입된 글로 구전적 공연 요소가 보여 구전설화 혹은 창작설화로 평가된다. 이 글에서는 문학사 측면에서 諫言型 창작설화로 보고 <화왕계>의 가치를 내외적으로 살피고 이를 살린 스토리텔링 방안을 제시한다.

장미와 할미꽃의 대립적 비유로서 신문왕에게 직언을 한 설총의 <화왕계>는 우언이자 풍자의 전형이다. 이 기록은 16세기 『동문선』 권52(서거정 등 편찬)에는 <飄王書>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다. ‘戒’와 ‘飄’의 의미에 주목하여 표면적 교훈성과 이면적 풍자적 비유성을 새롭게 읽어야 한다. 원효의 말처럼 그는 ‘하늘을 받치는 대들보’[天柱]가 된 셈인데³⁾ 그 자체도 상징적 우언담론이다. 결국 <화왕계>는 통시적 구전전통과 이념적 기록전통을 통합하여 살펴야 한다.

<화왕계>에 대한 학계에서 다각도로 논의해 왔지만, 문맥상 ‘암유성’ 스토리텔링 국면 검토는 구체적으로 없었다. <화왕계> 풍자론은 寓言原理를 바탕으로 표면에는 빗대기 설법이고 이면에는

1) 김형수, 「신라 유학과 설총의 사상」, 『한국사상과 문화』 23집, 한국사상연구소, 2018, pp.199~219 : 우리역사연구회, 『설총』 엠엘에스, 2014, pp.34~35.

2) 이구의, 「설총 화왕계의 구성과 의미」, 『동아인문학』 34집, 동아인문학연구소, 2016, pp.7~8.

3) 중국의 한자에 한국식 음운을 달아 새로운 문자인 이두(향찰)를 집대성한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고려 현종 때 흥유후에 추증된다. 생몰연대는 문헌을 참고하여 657~746년으로 비정한다.

諷諫的 정치진언⁴⁾인 셈이다. 전자는 연꽃으로 비유되는 佛性 말하기의 영향인데 하나로 회통한 점이다. 후자는 후대 <화왕계> 리텔링이 지속된 것처럼 왕도정치적 表辭-寓言深志에 다름 아니다.

<화왕계>는 구연 측면에서 善戲, 곧 놀이를 전제로 현실을 날카롭게 풍자해도 좋다는 장소성과 개방성이 깔려 있다. 신문왕은 설총에게 후세인들에게 寓意的 교시가 되도록 이를 글로 남기라고 하명할 정도로 「설총」 열전에서 개입적 ‘이바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특히 ‘이바지’⁵⁾가 「설총」 열전의 구연성을 고려하면 신문왕의 대리자인데 그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II. 화왕계의 풍자적 가치

1. 내적 가치

할미꽃과 관련된 많은 전설류가 전해지는데, 그 중 가장 유명한 내용은 『삼국사기』 열전에 기록된 설총⁶⁾의 <화왕계>이다. 어느 날 신문왕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하여 설총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부탁하였고, 설총은 그 자리에서 <화왕계>를 들려주었다. <화왕계>는 간신을 멀리하고 충신을 가까이하라는 내용의 창작설화이다. 설총은 우화를 통해 간신을 멀리하고 충신을 가까이해야, 나라가 바로 서고, 향락과 사치를 멀리하며 도덕을 지킬 것을 강조하였다. 설총의 의도⁷⁾를 깨달은 신문왕은 후세의 임금들에게 교훈이 되도록 글로 남기라고 명하였다고 하는데,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설총이 이렇게 말했다. “제가(설총) 들은 것은 옛날 화왕(花王, 모란)이 처음 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를 향기로운 동산에 심고 푸른 장막으로 보호하였는데, 봄철이 되자 곱게 피어나 온갖 꽃들을 능가하여 홀로 빼어났습니다. 이에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에 이르기까지 곱디 고운 아름다운 꽃의 정령들이 바삐 달려와 화왕을 알현하고자 하며 오로지 뒤쳐지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⁹⁾

4) 윤주필, 「귀토지설과 화왕계의 대비적 고찰」, 『서사문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 단국대출판부, 2013, p.641.

5) 삼회향놀이나, 땅설법에서 구연자인 강담사로서 연, 강, 창을 돕는 역할이다. 「설총」 앞 대목과 ‘대왕 안색 운운’을 특히 주목하였다.

6) 『삼국사기』 권46, 열전6, 설총.

7) 정호완, 「화왕계의 선택」, 『설총의 꿈』, 한국문학방송, 2015, pp.190~202.

8) 『삼국사기』 권46, 열전6, 설총.

9) 『삼국사기』 권46, 열전6, 설총, “聽曰唯 臣聞昔花王之始來也 植之以香園 護之以翠幕 當三春而發艷 凌百花而獨出於是 自邇及遐 艷艷之靈 夭夭之英 無不奔走 上謁 唯恐不及.”

2) 홀연히 한 미인이 붉은 얼굴과 옥 같은 이에 곱게 화장하고 맵시 있게 차려입고는 간들간들 오더니 얌전하게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저는 눈처럼 흰 물가의 모래를 밟고, 거울처럼 맑은 바다를 마주보며, 봄비로 목욕하여 때를 씻고, 맑은 바람을 상쾌하게 쐬면서 유유자적하는데, 이름은 장미(薔薇)라고 합니다. 왕의 아름다운 덕을 들은지라 향기로운 휘장 속에서 잠자리를 모시고자 하는데 왕께서는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¹⁰⁾

3) 또한 한 장부가 벼룩에 가죽띠를 매고[1] 허연 머리에 지팡이를 짚은 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구부정하게 와서 말하기를 “저는 서울 밖의 큰길가에 거처하여, 아래로는 푸르고 넓은 들판의 경치를 내려다보고 위로는 우뚝 솟은 산빛에 의지하고 있사오는데, 이름은 백두옹(白頭翁, 할미꽃)이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비록 주위에서 받들어 올리는 것들이 넉넉하여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차와 술로 정신을 맑게 하고 의복이 장롱 속에 쌓여 있더라도, 반드시 좋은 약으로 기운을 돋우고 독한 침으로 병독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말에 명주실이나 삼실 같이 귀한 것이 있다고 해도 왕골과 띠풀 같은 천한 물건을 버리지 않아, 무릇 모든 군자들은 모자람에 대비하지 않는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왕께서도 또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¹¹⁾

4) 어떤 이가 “두 사람이 왔는데 어느 쪽을 취하고 어느 쪽을 버리시겠습니까?”하니, 화왕이 “장부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아름다운 여인은 얻기가 어려운 것이니 이 일을 어찌할꼬?”라고 하였습니다. 장부가 나아와서 말하기를 “저는 대왕이 총명하여 이치를 잘 알 것이라 생각하여 왔는데, 지금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무릇 임금된 사람치고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를 가까이하고 정직한 자를 멀리하지 않는 이가 드뭅니다. 이 때문에 맹가(孟軻, 맹자)는 불우하게 일생을 마쳤고, 풍당(馮唐)은 낭서(郎署, 숙위관으로 낮은 관직임)에 머물러 백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러하였으니 전들어 어찌하겠습니까?”라고 하니, 화왕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¹²⁾

5)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이 안색을 바로 하며 말했다. “그대의 우화는 진실로 깊은 뜻이 담겨 있다. 글로 써서 왕 된 이들의 경계로 삼기 바란다.” 그리고는 설총을 높은 관직에 발탁하였다.¹³⁾

10) 『삼국사기』 권46, 열전6, 설총, “忽有一佳人 朱顏玉齒 鮮粧靚服 伶俜而來 綽約而前曰 妾履雪白之沙汀 對鏡清之海而沐春雨以去垢 快清風而自適其名曰薔薇 聞王之令德期薦枕於香帷 王其容我乎?”

11) 『삼국사기』 권46, 열전6, 설총, “又有一丈夫 布衣韋帶 戴白持杖 龍鍾而步 僂僂而來曰 僕在京城之外 居大道之旁 下臨蒼茫之野景 上倚嵯峨之山色 其名曰白頭翁 竊謂左右供給雖足 膏粱以充腸 茶酒以清神 巾衍儲藏 須有良藥以補氣 惡石以鑄毒 故曰 雖有絲麻 無棄菅蒯 凡百君子 無不代匱 不識王亦有意乎?”

12) 『삼국사기』 권46, 열전6, 설총, “或曰 二者之來 何取何捨 花王曰 丈夫之言 亦有道理 而佳人難得 將如之何 丈夫進而言曰 吾謂王聰明識理義 故來焉耳 今則非也 凡爲君者 鮮不親近邪佞 疎遠正直 是以 孟軻不遇以終身 馮唐郎潛而皓首 自古如此 吾其奈何 花王曰 吾過矣 吾過矣.”

13) 『삼국사기』 권46, 열전6, 설총, “於是 王愀然作色曰 子之寓言 誠有深志 請書之 以謂王者之戒 遂擢聰以高秩.”

화왕의 빼어난 미모(도입) - 장미가 미모로서 화왕의 환심을 사려함(전개1) - 장미와 백두옹의 청원(전개2) - 화왕의 고민(갈등) - 화왕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결말)으로 구성되었다. 백두옹은 빗대기식 간언-본문 밑줄 친 부분 변화 주제를 통해 바른 도리의 원본대로 ‘寓言深志’를 주장하였다. 왕과 장미는 부귀와 안주의 욕망에 집착하였다. 왕을 배알하려는 목적을 가졌다. 여기서 두 꽃이 대조적으로 등장하였다. 장미는 붉은 낮, 옥색 이에 짙은 화장하고, 눈부신 옷을 차려입은 꽃이다. 백두옹은 반대 시각의 형상이다.

꽃 중의 왕인 花王(모란)¹⁴⁾이 처음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원근 주변 곳에서 온갖 꽃들이 다투어 화왕을 뵈고자 찾아왔다. 그 중 佳人(장미)은 임금에 유혹하거나 아첨하고 백발의 장부, 白頭翁(할미꽃)은 임금에게 충언을 한다. 한 신하가 둘 중 누구를 취할 것인지 묻자 왕은 이렇게 답한다. “장부의 말도 도리가 있지만, 가인을 얻기 어려우니 이를 어찌할까?” 그러자 백두옹이 이렇게 말한다. “왕이 총명하여 이치를 잘 알 것이라 생각해 왔는데, 지금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 된 사람치고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를 멀리하고 정직한 자를 가까이하는 이가 드뭅니다. 예로부터 이러하오니 저인들 어찌하겠습니까?” 그러자 화왕이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다”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설총은 장미 계통의 무리를 경계하였다. 이는 당부이면서 진언이다. 한국 최초의 창작 설화로 알려져 있고 <화왕계>의 假傳的인 요소는 고려 때 假傳體 작품에 영향을 주었으며, 꽃을 의인화한 것으로 풍자를 해서 왕에게 충고를 깨닫게 하는 내용이다. 왕을 花王(牡丹),¹⁵⁾ 간신을 장미, 충신을 백두옹(할미꽃) 등에 비유해서, 장미, 백두옹을 통해 간신을 멀리하고 충신을 가까이하라는 내용이며 이는 곧 유교적인 정치 이념-표면적 의도-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동문선』 권52에서는 <풍왕서>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이유이기도 하다.

설화가 말하는 비유 眞意 곧 화자¹⁶⁾의 궁극적 화두를 몰라서 의심하는 신문왕은 문맥상 설법의 이바지 역할이다. 公案처럼 가르침을 둘러서 말한 것인데 이해하는 과정에는 걸림이 있었다. 화자는 본문대로 聰明理義를 가진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설득하고자 하나, 처음에는 실패한다. 흔히 看話禪 대목인데 화자의 비유적 결기로 ‘이바지’ 생각이 바뀐다.

이바지는 모란꽃을 간첩화하며 개입자로서 왕이다. 문맥상 신라 최고층 신문왕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미인계와 현자계를 두고 갈팡질팡한다. 실제 우유부단한 모습이 강해 위기인 셈이다. 게다가 백두옹의 간언에도 미인계의 아름다움 세력에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취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자의 설득과 결단으로 마음을 고쳐먹는 인물이다. 이를 볼 때 비록 모든 인간들이 지니는 우유부

14) 모란, 장미, 백두옹 명명 근거는 단정적이지 못하고 이두식 호명이 있을 듯하다. 윤주필은 백두옹을 ‘할미십갑’이라고 하였다(윤주필, 앞의 글, 2013).

15) 이동매, 「모란 전래시기를 통해서 본 선덕여왕의 모란일화와 화왕계」, 『한국학연구』 31권, 한국학연구소, 2013, pp.202~225.

16) 설총인데, 원문의 문맥에서는 백두옹을 지칭하고 있다.

단합의 한계를 지녔지만 화왕은 현자의 간언을 다시 꼼꼼히 귀담아듣고 반성할 줄 안다는 점에서 理義 어질고 올바른 다스림-를 가지는 대장부적인 인물이다.

『삼국사기』<화왕계>는 기존 할미꽃의 전설 이미지를 바탕으로 하였다. <화왕계>는 간신을 멀리하고 충신을 가까이하라는 뜻을 빗대어 말한 한국 최초 창작형 풍자설화이다. 설총의 의도를 깨달은 신문왕(외적 화자)은 후세의 임금들에게 우언적 智慧로 통하도록 글¹⁷⁾로 남기라고 하명할 정도로 글 논지에 작용하는 화자인 셈이다. 이처럼 개입적 ‘이바지’ 신문왕의 역할은 <화왕계> 문맥에서 중요하다.

<화왕계>의 이야기 전략은 일심(一心) 풍자원리의 출발점이다. 비유의 원천은 사물의 본성을 의인화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데 있다. 理義, 일심으로 돌아가자는 불교의 화두를 서사 설법의 방식으로 들려주는 것이다. 시각적 효과, 대조적 캐릭터로 이야기의 흡인력을 높이고 있다. 상위의 존중과 빗대기를 통해 넉넉히 일러주기를 통해 감화를 유도하고 있다.¹⁸⁾ 이는 전달 방편으로 ‘우의수법’을 통해 정신적 ‘교감소통’에 이르는 것이다. 이는 마음의 뜻을 보다 잘 설득하려는 우언방식이다.

이러한 <화왕계> 구성의 내포적 전략을 감안하면 1차적 가치는 적절한 풍자원리의 시발점이다. 주요 비유의 원천은 사물의 이미지 의인화 빗대기로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 무엇보다 불교식 꽃 화두를 서사 설법-속강승 땅설법의 전통과 비유방식-으로 엮어 들려주기와 결단의 촉구를 유도하고 있다. 놀이판 화두의 궁극적 잣대는 상대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일깨움에 있다.

<화왕계> 화법은 표면적으로 대립과 갈등의 상극지점에 대해 빗대어 설득하기를 통해 화쟁적 어울림에 이르는 논법이다. 진실한 뜻(眞實義)에 대해 이미지 대조의 담론을 통해 공유하는 것이다. 頂門一針의 의도를 둘러치기로 해소하는 설법이다. 목적성을 지닌 발탁과 단판에 대해 화쟁적 화두로 해소하는 수사이기도 하다. 이면적으로 균형과 태평의 상생을 끌어들이는 납득시키기를 통해 실행적¹⁹⁾ 조화-화쟁 사유-에 닿는 논법²⁰⁾이다.

2. 외적 가치

설총은 충직한 왕사의 위치에 있었다. 신문왕은 삼국통일 이후 갈라진 삼국 백성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이 <화왕계>가 지어진 시기는 왕권을 이어받은 신문왕(681~692)이 12년 동안 신라를 명실상부한 통일국가로 튼실하게 완성하려고 애쓰던 때였다. “오늘은 오래 내

17) 불교식 自性論인데 유교식 表辭論인 셈이다.

18) 원효의 『대승기신론』 和諍, 眞實義로 불교사유 체계이며, 모두가 실제 현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로 만나고 어우러진다는 것이다.

19) 『금강삼매경론』에서 말하는 일미관행의 실천을 뜻한다.

20) 화쟁 스토리텔링의 전범이라 명명할 수 있다.

리던 비가 비로소 개이니 바람이 시원하구나. 비록 맛있는 음식과 애절한 음악이 있어도, 고상한 담론과 재미있는 이야기로 울적한 마음을 푸는 것만 하겠느냐. 그대는 반드시 색다른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이니, 어찌 나를 위하여 말해 주지 않는가?”라고 하였다. 신문왕의 발언이 이런 정도라면 왕과 설총은 가까운 관계였음²¹⁾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설법 시작은 설총이 예전에 ‘꽃나라 왕’이 먼저 들어 왔을 경우의 여담을 들은 바 있다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사전에 신문왕과 설총 둘 사이에 실제 대화가 있었고, 이것을 글로 옮겼다고 보인다. 글은 우화 講唱演의 땅설법 대본에 가깝다. 꽃밭 나라를 가상으로 설정하고, 꽃의 왕과 여러 신하 사이에 정치담론식 말하기가 이뤄지는데, 일반 세상살이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꽃동산의 꽃의 왕은 화려함에 들러 쌓였고 푸른 장막으로 가려져 있었다. 신문왕 내외 이미지에 부합하는 대목이다.

봄 속 온갖 다른 꽃들을 능가하는 지존의 치장이다. 역시 ‘꽃의 왕’이라 할 만하였다. 이에 경쟁하듯 멀고 가까운 곳에서 곱고 어여쁜 꽃들이 빠짐없이 달려왔다. 신문왕의 경청에 대한 일화가 있다. 어느 날 설총이 비유적 설법의 의도가 드러난다. 직접 지은 이야기라 정도로 결단을 촉구하는 장면을 연출한다. 신문왕 꽃인 모란꽃 주변에 장미꽃과 할미꽃이 있다. 귀족계 장미꽃은 아침하는 이야기로 나라를 흔들고, 민생계 할미꽃은 쓴소리로 시대적 전환의 메시지를 말한다.

바른 말을 듣기 싫어하는 왕이었다면, 말에 가시가 있다고 듣기 싫다며 내쳤을 텐데 신문왕은 오히려 백의정륜화사²²⁾ 설총을 칭찬하였다. 이는 忠諫論이다. 설총의 말대로 간신계를 억누르고 충신계를 가까이하여 통치하였다.²³⁾ 그 혼란한 신라가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통일신라 신문왕대 초기 닦아-은 이런 신문왕의 초심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덕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화왕계> 앞부분과 연계하여 읽으면 성품이 영민하고 도술에 타고났다고 하였다. 혜안을 이야기꾼이 이바지의 호응 받도록 이끌어 간다. 설총이 지은 <화왕계>는 후대 수용과 재해석으로 보아, 할미꽃 등 전설 이미지를 전제로 왕도 장부론-불교, 유교 공통적으로 결기 있는 바른 정치 실행자의 군주론-을 제시하였다. 장부론은 김부식의 유교사관이며 이런 시각에서 「설총」 열전을 기술한 것이다.

신문왕의 뜻은 백두웅 설법으로 바뀐다. 정치노선이 바뀌는 대목이다. 미인류의 기득권 세력을 견제하고 이의, 仁義의 전략을 은유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문맥 대화에서 신문왕이 미인과 현자 사이 갈등, 그 해결의 방안을 두고 판단을 내리지 못해 난처할 때 맹가, 풍당 고사로 들어 결단을 유도

21) 설총에게는 무열왕이 외할아버지이며, 문무왕은 외삼촌이므로, 신문왕은 설총의 외사촌 형이 된다. 신문왕으로서 설총이 고종사촌이다. 미루어 둘은 사사로운 연회를 함께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신문왕은 녹음 짙은 초여름 어느 날 미려한 정자-선희, 놀이터-에 앉아 설총을 왕궁에 들도록 명하였다. 설총이 예를 갖추어 황급히 신문왕이 쉬고 있는 편전과 선희장에 이르렀다.

22) 고려 때의 홍유후의 별칭이다(『홍유후선생실기』).

23) 윤주필, 「우연과 정치」, 『고소설연구』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pp.8~13. 설씨 가문까지 논의하였다.

하였다. 김흠돌 사건 등의 도전과 위기에 장부로서 기개를 간언한 점이고 본인의 세계관을 소개한 점이다. 신문왕 이바지와 진술자 설총은 장부적 인물로 협치로 귀결된다.²⁴⁾

장미는 화왕의 앞에 나타난 미인으로, 말 그대로 장미꽃. 작중에서 상징하는 바는 눈앞에 있는 부귀영화와 쾌락, 혹은 왕에게 아첨함으로써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간신으로 왕을 유혹하고 찰나의 즐거움을 주지만 결국 왕을 그릇된 길로 이끌기에 마땅히 내쳐야 하는 존재로 묘사된다. 화왕은 처음에는 장미에 대한 미련으로 포기하지 못해 우유부단하게 굴었으나, 현자 백두옹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려 자신의 허물을 뉘우치게 된다. 할미꽃은 비유적으로 간신배의 모함으로 벼슬을 그만두고 초야에 묻혀 살던 설총²⁵⁾ 자신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정치적 계산과 전략-으로 보인다.

백두옹 장부는 거듭 태어난 화왕인 신문왕의 현자로, 할미꽃 이미지다. 문맥에서 암유하는 바는 무소불위 절대권력에게 올바른 길을 일깨우는 충신이다.²⁶⁾ 꽃나라 이야기에 참여한 신문왕은 자신의 거울 지표를 본 것이다. 비전을 제시하는 신하가 부재한 현 신라의 조정에서 자신의 왕도정치를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찾은 것이다. 충신 장부론이 설총의 깊은 뜻을 致祭와 善戲 화법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설력담은 설총이 직접 만들어낸 것이기에 왕도정치의 길을 연 대장부론이라고 가늠하였다. 「원효불기」의 설총 문맥과 연결하면 설총 자신의 이야기와 당대 기득권 세력 이야기를 화왕과 그 주변으로 비유하여 드러낸 것이다.²⁷⁾

처음에는 화왕의 앞에서 그에게 도움이 될 만한 간언(충고와 방항)을 올리나 화왕이 우유부단하게 굴자(집착과 아집에 잡혀 있음) 이에 실망하여 왕에게 간언을 올렸으나 끝내 왕이 그들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불우하게 삶을 마친 현자들과 충신들의 예를 도입하여 말하고²⁸⁾ 화왕의 곁을 떠나겠다(결기와 무애)고 선언하자,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화왕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게 사과하였다. 결국 이 인물은 설총을 상징하는 일면과 상통한다.

문학양식에서는 과거에 대한 회고적 성격이나 현실체제에 대한 불만을 관찰자적 수법-이바지 역할과 감동 전하기 언술자-으로 표출함으로써 새로운 대안 내지 미래에 대한 조망을 예시하는 불씨로서 풍자의 諫言 수법이다. 인간의 구원과 존재가치, 사회적 대응의 문제를 우화적으로 형상화한 일련의 전후 글들²⁹⁾에서 풍자적 요소가 나타난다. 화쟁론이나 유교적 國富論, 대장부 세우기를

24) 윤주필, 「귀토지설과 화왕계의 대비적 고찰」, 『서사문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 단국대출판부, 2013, p.638.

25) 도술가, 유학교육자, 문장가인데 「설총」 열전의 「師」의 역할과 동일하다.

26) 신문왕은 문무왕의 맏아들이다. 신문왕은 당나라의 중앙집권적 율령제를 시행하였다. 즉위하던 원년(681) 8월에 장인인 김흠돌을 비롯한 파진찬 흥원, 대아찬 진공 등의 반란 사건이 있었으나 전부 평정하였다. 신권을 누르고 왕권의 확립을 위하여 통일 이후 정치 사회적 변혁으로 국왕과 육두품 세력이 가까워졌을 때, 설총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신념을 왕에게 포부를 펴보이고자 하였다.

27) 신문왕은 자신에게 바른 정치의 길을 알려준 설총을 추천하여 한림학사로 임용하였다. 이후 효소왕, 원성왕, 경덕왕대까지 활동한다.

28) 윤주필, 「우언글쓰기의 원리와 자료의 적용범위」, 『한국한문학연구』 28, 한국한문학회, 2001, pp.16~19.

29) 김형수, 「신라 유학과 설총의 사상」, 『한국사상과 문화』 23집, 한국사상연구소, 2018, pp.200~211.

둘러 빗대기로 드러낸 화법이다.

이처럼 <화왕계>의 2차적 가치는 왕도 대장부론에 있다. 설총은 戒와 諷의 글쓰기로 이상적 정치관을 제시한 것이다.³⁰⁾ 가면적 외양보다 진솔한 내면·본문 대로 聰明理義형 무애론을 보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주체에게 장미세력을 배격 대상으로 하되 지목하여 경계를 주문하고 백두웅의 충언을 들어 혁신하도록 유도한다. 은유·정치풍자의 효과와 교감-왕도 대장부론³¹⁾을 제시한 셈이다. 경륜에서 나온 의인화 우언의 스토리텔링이다. 갈등이 내재된 가전형 창작성이 돋보이는 점이다. 풍간의 표시와 가전체 소설에 원형 노릇을 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는 설총 사적으로써 앞서 동량지재 곧 올바른 인재 구하기와 등용을 빗댄 원효 도끼론과도 상통한다.

Ⅲ. 화왕계유산의 풍자 스토리텔링

1. 리텔링: 설총론 재구성과 연출

<화왕계>는 앞서 논의한 대로 『삼국사기』에 열전 기술양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꽃 인상과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액자 속 이야기이다. 이를 빼면 설총 인물의 수용은 모호하였을 것이다. 신문왕이 심심풀이로 설총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청하였다. 설총은 놀이판에서 <화왕계>를 통해 두 가지를 동시에 얻었다. 충신론과 널리 공인하도록 한 계도용 설법론³²⁾이 그것이다. 설총과 신문왕(외적 화자)은 교감되었고 후세의 임금들에게 寓意的 교훈의 개입적 ‘이바지’ 역할로 새 길을 열었던 점이다.

설총은 이를 계기로 확고하게 통일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시기에 이두³³⁾를 창안하여 유교적 경전류를 풀이하고 이를 기초한 인재를 가르치고 키웠다. 아버지 원효가 「원효불기」에서처럼 어려운 불교 경전과 교리를 풀이하여 사부대중을 교화하였듯 설총은 유교 경전을 신라 일상어로 풀어 널리 전하였다. 설총이 지은 글들은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하던 무렵에는 대부분 소멸한 듯하다.³⁴⁾ 글을 짓고 소문은 퍼졌으나 세상에 전해 온 것이 없고, 다만 지금 남쪽 지방에 설총이 지은 ‘甘

30) 신문왕 4년(684) 안승의 아들 大文이 반란을 일으키자, 그를 처형하고, 고구려 유민들을 금마군에 분산하여 살도록 하였다. 당대의 권력 실세로 잘 나가던 병부령 군관에게도 죄를 물어 가차 없이 처형하였다.

31) 김부식의 「설총 열전 기술 의도에 적절히 부합한다(이종문, 「삼국사기 최치원 열전에 투영된 김부식의 의식의 몇 국면」, 『한문학 연구의 이모저모』, 국학자료원, 2019, pp.110~115).

32) 불교나 유교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리더십은 대장부론이다. 『맹자집주』 권6, 등문공 하편.

33) 정호원, 「설총의 국학과 콘텐츠의 활용」, 『설총의 생애와 학문』, 삼성현연구소 학술자료, 2010, pp.57~59.

34) 이종문, 「삼국사기 최치원 열전에 투영된 김부식의 의식의 몇 국면」, 『한문학 연구의 이모저모』, 국학자료원.

山寺阿彌陀如來造像記³⁵⁾의 비명이 남았었지만, 글자가 망가져서 읽을 수 없었다. 『고려사』 현종조에 부분적으로 드러난다.

『삼국유사』에는 원효의 <沒柯斧歌>가 실려 있다.³⁶⁾

하루는 원효가 거리에서 소리 질러 노래 불렀다. “누가 자루 빠진 도끼를 주려나 …… 내가 하늘 꾀는 기둥을 자를 터인데.” 자루 빠진 도끼라는 말의 원문이 몰가부다. 사람들은 뜻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태종 김춘추가 듣고는, “이것은 스님이 아마도 귀부인을 얻어 현명한 아들을 낳겠다는 말일 것이야. 나라에 큰 현인이 있으면 이보다 더 큰 이익이 있으려고.”라고 하면서, 때마침 요석궁의 과부 공주를 생각하였다.

김춘추는 궁궐 관리에게 원효를 찾아서 데려오라 지시하였다. 원효가 남산에서 내려오는 중 문천교를 지나는데, 한 관리를 만나자, 원효는 스스로 물속으로 떨어졌다. 입은 옷이 몽땅 젖었던 것이다. 관리는 스님을 오석궁으로 데려가 옷을 갈아 입힌 후, 옷을 빨아 말리게 하였다. 그러자니 원효는 요석공주의 집에 자고 가게 되었고, 이어 공주는 태기가 있었으며, 설총을 낳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설총의 장소성은 분황사에서부터 二聖臺³⁷⁾까지 분포되어 있다.

설총의 탄생은 한 스님을 파계시킨 사건들의 소산이었다. 정작 원효 자신은 파계를 운명적으로 받아들였다. 속인으로 돌아와 스스로를 小性居士라 치하며, 이때부터 『華嚴經疏』를 근거로 일반 백성에게 부처의 이름을 더욱 높이 외쳐 알렸다.³⁸⁾ 설총은 승려와 공주 사이에 태어났으나, 출생의 문제에 얽매지 않고³⁹⁾ 눈부신 역량을 펼쳤다. 설총은 분황사에서 吏讀을 집대성하였다.⁴⁰⁾ 그 모습을 『삼국유사』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657년 원효대사가 거리를 쏘다니며 ‘자루 빠진 도끼를 빌려주면 하늘을 버틸 기둥을 세우겠다고 미치광이처럼 노래 부르고 다닐 때 그 뜻을 알아듣는 이가 없었다. 유일하게 무열왕(603~661)이 알아들었다. 마침 이전에 화랑 金歆運에게 시집을 가서 딸 둘을 얻고 655년 과부가 된 瑤石公主를 원효에게 주어 동거하게 한다. 『周易』에서 남성은 木이고 여성은 金이다. 그러기에 남자는 목성인 도

2019, pp.95~116.

35) 남동신, 「감산사 아미타불상과 미륵보살상 조상기의 연구」, 『미술자료』 98호, 국립중앙박물관, 2020, pp.23~49.

36) 『삼국유사』 권4, 의해5, 원효불기; 『삼국유사』 권4, 의해5, 자장정률.

37) 필자는 1997년 정선 노추산 二聖臺(설총과 울곡 배향)를 답사한 이후 설총전승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후대 聖人 예우가 있다.

38) 이동근 외, 『삼성현 스토리텔링연구』, 대구대출판부, 2010, pp.251~252; 남동신, 「감산사 아미타불상과 미륵보살상 조상기의 연구」, 『미술자료』 98호, 국립중앙박물관, 2020, pp.22~53.

39) 인재 등용의 한계와 육두품 정계 진출의 문제가 있었고, 김흠돌 사건이 있었던 것은 신문왕대였다.

40) 정호완 역, 『홍유후선생실기』(원고본, 원본은 경기대도서관).

끼자루에 여자는 금속성인 날에 비유한 것이며 자루는 꿰는 능동체이고 도끼는 꿰어지는 피동체를 말한다. 결국 金春秋의 혜안으로 그 두 사람은 마침내 658년 하늘을 떠받칠 재목인 설총을 얻는다.

설총은 태어나면서 매우 총명하여 경전과 역사에 널리 섭렵하여, 신라의 열 분 현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신라말을 가지고 중국과 신라의 세간 풍물과 이름을 통하게 하였으며, 六經과 문학을 뜻풀이하였다. 지금 신라에서 경전을 배우고 익히는 자들이 전수하여 끊이지 않고 있다.

우언의 기록성을 감안하면 부자간의 천재성을 비유하고 있다. 요석궁터에 있는 우물에서 설총이 ‘총명수’를 마시고 신라의 대학자가 되었다⁴¹⁾고 전한다. 이는 『삼국사기』에서 설총을 두고 평가한 말과 비슷하다. “성질이 총명하고 예리하며, 나면서부터 도술을 알았다. 우리말로 九經⁴²⁾을 해독하여 제자를 가르쳤으므로, 지금까지 학자들이 그를 종주⁴³⁾로 삼고 있다.”는 대목이 그것이다. 이런 설화를 재구한 곳이 ‘삼성현역사문화공원⁴⁴⁾과 ‘삼성현 초월의 길’이다. ‘설총 이야기’는 이두의 업적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설총실에는 ‘(인물 소개) 하늘 떠받칠 기둥’으로 설총의 탄생, ‘물가부 설화’로 만든 애니메이션 영상이 있다. 원효와 요석공주 만남을 통해 설총의 탄생담의 과정은 다섯 개의 팝업방식으로 전시되어 있다. ‘과제’ 말과 글이 다른 세상’에서는 설총과 함께 신라 3대 문장인 강수(?~692), 최치원(857~?) 등 신라 유학자들과 신라시대 유학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설총에 나오는 도술성과 국학인문의 천재성은 부각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두(한자의 소리와 뜻을 빌려 신라말을 적던 표기법)의 역사성⁴⁵⁾을 드러내고 있다. ‘(업적) 이두로 유학의 가르침을 전하다’에서는 신라유교의 종조로서 이두를 연구한 설총의 업적과 신라 신문왕에게 들려준 <화왕계>를 통해 유교적 가르침의 의도를 전하고 있다. ‘(영향) 유교의 대학자 코너’는 文廟⁴⁶⁾에 이름을 올린 설총과 그를 배향하는 서원, 후대의 학자들이 설총에 대해 기록한 다양한 리텔링을 전시하고 있다.

설총은 인문학적으로 주목되는 인물이다. 설총이 한글의 모태인 이두 향찰을 고안하였기 때문이다. 설총은 어릴 때부터 분황사에서 원효의 훈육을 받았다. 원효의 훈육은 불교, 예법, 천문학, 정

41) 분황사에서 원효·설총의 장소성과 함께 이들의 천재성을 공유하기로 수용되었던 점이다.

42) 조준하, 「설총과 구경에 관한 고찰」, 『한국사상과 문화』 17, 한국사상문화학회, 2002, pp.89~109.

43) 『삼국사기』, 『제왕운기』 등에 따르면 ‘설총은 이두를 만들어 속언과 향어로 유교 경전의 문장을 학습하게 하였다’라고 전한다.

44) 경산은 문학(설총, <화왕계>), 역사(일연, 『삼국유사』), 철학(원효, 화쟁론)의 거장을 낳은 문사철 인문학의 고장이다.

45) 향가, 鄉札 기록처럼 한자의 훈과 음·方音, 口音으로 우리말 노래 짓고 쓰기에까지 이르렀다.

46) 경상북도 기념물 제130호 ‘傳弘儒侯薛聰墓’ 소재지는 경북 경주시 보문동 423으로 신라 신문왕·경덕왕 때의 학자인 설총의 묘이다.

치, 사회는 물론 언어, 문학에 이르기까지 설총을 당대 최고의 인재로 만들었다. 설총은 효심 또한 지극하였다. 신라는 민족의 자주성이 강조되는 사회였고, 불교 사찰에서는 불경을 해독하면서 한자 원문에다 이두를 덧붙여 사용하였다. 설총은 선각자적 관점에서 이두를 체계화해 백성들이 쉽게 이해하고⁴⁷⁾ 활용하도록 최초의 우리 문자를 만든 것이다. 설총은 원효의 口音 전통을 살려 이두만으로 불경을 해독하고 낭송하였다.⁴⁸⁾

분황사 <화쟁비>와 같이 읽게 되면 원효 돌아본 塑像의 이야기에는 우의성⁴⁹⁾이 보인다. 도끼자루와 설총이 빛은 소상, 화쟁비는 풍자 인문학의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땅설법적 풍자문학⁵⁰⁾은 웃음이 주는 소통과 재미가 암시하는 강력한 경계와 고발 탓으로 다른 양식의 문학에 비하여 의미 부여가 강하다. <화왕계>와 같은 창작은 분황사 화쟁 땅설법의 공연장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설총에 대한 구비적 확산에도 일정한 구실⁵¹⁾을 하였다. 이를 미루어 설총이 인문학의 본격 출발이 되고, 분황사가 인문학의 터전이 된다.

신라 조정은 서당화상탑비·화쟁비·를 세우고, 비문에서 원효의 화쟁사상을 칭송하였다. 통일 후 고구려·백제·신라로 갈라져 싸우다 삼국통일을 이룬 당대에 가장 절실한 시대정신은 ‘和靜’이었고 신문왕대 역시 화쟁형 화왕 리더십(대장부론)을 요구하였다. 동시대적 의미는 善戲로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었다. 화합과 국학적 창의를 당대 최고의 정신적 지침으로 생각된다. 이같은 정신유산적 가치⁵²⁾·풍자원리의 절묘함을 통한 내적 총명역량 갖기, 외적 정치주문인 대장부론 율기·를 살려 문화콘텐츠산업,⁵³⁾ 미네르바 국학⁵⁴⁾ 프로젝트, 설총유적 종합적 조사⁵⁵⁾로 기획되어야 마땅하다.

2. 킬러콘텐츠: 스토리텔링 짜기와 공연문화

주목할 것은 <화왕계>가 지속적으로 진일보 리텔링된 점⁵⁶⁾인데 李灝의「花王歌」는 지향하는 점이 같은 계보의 작품이다. 정호완본 <설총의 꿈> 스토리텔링⁵⁷⁾은 총 4막의 리텔링형 <설총전>이

47) 「감산사아미타상조상기」; 남동신, 「감산사아미타불상과 미륵보살상 조상기의 연구」, 『미술자료』 98호, 국립중앙박물관, 2020, pp.22~53. 이 글로 미루어 불교적 사유를 짐작할 수 있다.

48) 이등근 외, 『삼성현 스토리텔링연구』, 대구대출판부, 2010, pp.251~252.

49) 『삼국유사』 권4, 의해5, 원효불기. 이 대목에서 方音과 穴寺를 주목한다.

50) 이창식, 「안정사 땅설법의 전승과 가치」, 『아시아강원민속』 37집, 아시아강원민속학회, 2022, pp.168~191.

51) 화왕계 구연도 이러한 장소성이 자리하고 있다.

52) 이창식, 「감성 생활화와 문화치유」, 『공연예술적 감성과 킬러콘텐츠』, 월인, 2016, pp.78~80.

53) 이창식·최상수, 『지역축제와 문화관광』, 박이정, 2012, pp.34~37.

54) 김삼균, 『메타버스』, 플랜비디자인, 2022, pp.179~184.

55) 원효·설총을 연계하여 전면조사로 인물전승 아카이브를 구축해야 한다.

56) 조선시대에 와서 채소권의 「花王傳」, 이이순의 「花王傳」으로까지 진전하였다.

다.⁵⁸⁾ 작품 전반에 걸쳐 보이는 聰明理義인데 대장부 리더십 창출과 寓言深志의 녹여내기로 보여 주고 있다. 신문왕의 새로운 정치-선택 앞에 선 화왕(스토리브랜딩)-영혼과 현종과의 만남-설총의 예언(선지자적 영웅성)으로 구성된 시놉시스이다.⁵⁹⁾

제1막 ‘신문왕의 새로운 정치’에서 신문왕은 설총에게 통일된 신라의 큰 틀을 짜기 위해서는 새로운 나라에 걸맞은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한다. 설총은 당나라의 국가감을 견문하고 그와 같은 교육 기관을 세워 인재를 양성하자고 아뢰다. 설총은 방지를 스승으로 모시고 당나라로 떠난다. 당나라에 도착하니, 당나라는 경전 때문에 온 것을 알고 설총에게 『효경』 등 구경을 빌려준다. 설총은 하룻밤 만에 그 내용을 다 외우고 며칠 뒤 九經을 기증해 달라고 청원을 하였지만 거절을 당한다. 빈 손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설총이 장안을 떠나자 장안에서는 갑자기 큰 소동이 벌어졌고 천둥이 치고 바다에 해일이 일어났다. 설총 자신이 <태평가>를 부르자 해일이 바로 잠잠해졌다. 황제는 설총을 푸대접하여 일어난 일이라 생각하고 후회를 한다. 하지만 설총은 외워 온 구경을 바둑을 복기하듯이 다시 엮어 신문왕에게 경전을 내놓았다. 신문왕은 설총을 극찬하며 국학 발전의 중임을 설총에게 맡긴다.

설총은 왕명에 따라서 국학에서 표준 이두로 유교의 경전을 우리말 순으로 가르쳐 새로운 인재를 정성으로 길러냈다. 하지만 귀족과 사대부들, 강수 등은 석독구결 교육으로 성현의 경전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하였다.⁶⁰⁾ 국학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 과정 때문에 귀족 자제들도 국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종전처럼 추천으로 오르던 벼슬길이 막혀 버림으로써 엄청난 불만이 일어났다. 임금도 중재하였지만 신하들은 만장일치로 설총의 해임안을 주청하였으므로 자칫 정사⁶¹⁾를 그르칠 분위기였으니 신문왕은 번민에 싸였다.

설총은 깊은 번민 끝에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결심하게 된다. 바로 학사 옷을 벗고 산중으로 물러났다. 그가 산으로 들어간 지 사흘이 되었을 때, 갑자기 해와 달이 그 빛을 잃고 온 나라가 어두워졌다. 왕이 매우 놀라 만파식적을 불며 설총에게 사과하며 친히 그를 다시 맞이하는데 바로 해와 달이 본디 빛을 찾게 되었다. 복직한 설총은 학생들의 박수를 받고, 서로 부등켜 안고 학생들의 진심어린 환영을 받는다. 설총은 학생들과 같이 국학을 공부한다. 마침내 통일 교육과 새로운 이념이 되는 유학을 받아들여 왕권을 강화하고 국력을 안정시킨다. 군신 교감의 뜻이 반영되었다.

제2막 ‘선택 앞에 선 화왕’에서는 임금의 장인이었던 상대등 김흠돌 일파가 반란을 일으켰다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는 사건이 반영된다. 왕은 설총과 약주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설총이 왕에

57) 이창식, 『학제간 융합콘텐츠와 스토리텔링마케팅』, 『인문학적 상상력과 융합콘텐츠』, 글누림, 2015, pp.112~113.

58) 최종본 ‘설총의 꿈’(2022)을 중심으로 살핀다.

59) ‘설총의 꿈’ 스토리텔링은 무대공연 뮤지컬을 전제로 구상한 듯하다.

60) 최종본 ‘설총의 꿈’(2022)에서 드러난 설총에 대한 팩션(faction) 요소라는 점이다.

61) 『삼국사기』 권46, 열전6, 설총.

게 모란이 화왕이 된 전설과 모란과 장미와 할미꽃 이야기를 들려준다. 모란은 화왕으로, 장미는 간신배로, 할미꽃은 충신으로 등장하며 상황이 전개된다. 재해석 부분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꽃 중의 꽃인 모란이 화왕으로서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주위의 꽃들이 앞다투어 화왕을 만나러 왔다. 장미는 변함없는 사랑과 정열로 화왕을 모시겠다고 나선다. 이윽고 할미꽃은 외모로만 꽃을 판단하지 말고 통일 신라가 꿈꾸는 백성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아뢰다. 할미꽃의 말에는 도리가 있지만 미인을 얻기 쉽지 않으니 장미를 곁에 두려고 한다. 할미꽃은 임금이란 아첨하는 신하를 제한하고, 정직한 신하를 가까이해야 한다며 솔직담백하게 아뢰다. 화왕은 그의 말이 귀에 거슬렸지만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할미꽃은 丁侍者의 고사를 들려준다. 화왕은 크게 뉘우치고 할미꽃에게 잘못을 뉘우친다. 성찰과 화해를 보인다.

제3막 ‘영혼과 현종과의 만남’에서는 고려 현종 3년 여름 혹심한 가뭄에 기우제를 지냈으나 마실 물조차 모자랄 판이었다. 현종의 꿈에 설총이 나타나 자신의 원한을 풀어주면 단비를 내리도록 도와주겠다고 한다. 설총의 해골이 조복이라는 사람의 집 기둥 밑에 묻혀 있어 자손이 운을 펴지 못하니 도와 달라고 청한다. 현종은 조복의 집을 허물고 설총의 묘소로 삼았다. 그리고 봉분을 다시 만들고 사당을 짓고 묘비를 세우도록 하였다. 가뭄이 완전하게 해소되어 민심은 폭풍우 뒤의 맑은 하늘처럼 가라앉게 되었다.

제4막 ‘설총의 예언’에는 서학에 맞서서 겨레의 얼을 지키고자 하며 동학을 세운 최제우를 통하여 자신이 죽은 뒤 8년 뒤인 고종 8년(1871) 신미년에 곡부 땅에 한 선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문자로서 이두보다 훨씬 편리하고 글자의 획을 더함으로써 새로운 소리의 특징을 드러내는 자질 문자시대가 열릴 것을 믿고 있었다. 마침내 1997년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되었다. 세계 문자올림픽에서 연이은 금메달을 받았다.

지나가던 한 길손이 弘儒侯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진다. 길손은 미륵부처님이 언제 오시는지 묻는다. 설총은 “뒤에 올 사람은 이를 새로운 글자로 모든 사물의 소리를 적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요. 이로써 온 세상의 존경을 받는 문화국가가 될 것이라 민소.”라 답한다. 길손이 그런 가능성이 어디에 있는 지 묻자 설총은 『금강삼매경소』를 쓰신 원효와 단군왕검이 웅녀의 아들로 태어나 자란 얘기를 들려준다. 길손이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중심이 어딘가를 묻자 곧 사람의 마음 밭에 있음을 알려 준다. 또한 모두가 ‘답게’ 행함으로써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고 한다. <안민가>처럼. 길손은 큰 깨달음을 얻고 정중하게 숙여 인사를 하며 홍유후에게 작별 인사를 올린다.

설총 당대-후대 고려-동시대적 미래로 통시적 스토리텔링이다. 원효-설총 이야기(천재성) 방식은 聖俗의不二이면서 장부 정치관인데 시비의 조화에 있고 寓言深志의 정신력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 앞서 논의한 가치1, 2를 창조 생성하되, 연장선에서 원효 인연설을 강화하고, 정치적 맥락에서 만파식적 얻기,⁶²⁾ 신문왕 당대 사건 등을 추가해야 한다. 대립, 반목을 억제하고 화합-상생의 통일 길을 말하고 있다. 화쟁 스토리텔링으로 설총-신문왕 당대, 고려 현종 후대 이야기로 확장한 것이

정호완본 <설총의 꿈>이다. 충분히 매력적인 킬러콘텐츠가 될 수 있다.

정호완본 <설총의 꿈>은 설총의 이의설, 왕도론이 신문왕 총기의 이바지 노릇과 맞물려 서사가 짜여 있다. 물론 <화왕계>의 풍자 골격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자 상생-화쟁 정신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이다. 움직임 국면에서 신화소와 함께 웃음과 재미의 빗대기 요소가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 <화왕계>의 其意甚高를 살려서 리텔링하였지만 설총 인물론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형상화해야 한다.

캐릭터 면에서 학자 영웅성, 사건 면에서 대장부 목숨론, 배경에서 문무왕부터 경덕왕까지의 왕도론, 움직임 면에서 놀이와 땅설법 요소가 보태져야 한다. 실제 문맥에서는 다툼과 비판을 간접화하는 우회통로로서 우회형식을 빌려오고 풍자의 문화력인 웃음이 최소화되어 있는 국면이 있다. 물론 이러한 점은 화왕계 후대 리텔링 작품들⁶³⁾에서도 한계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화왕계>의 단선적 선입감으로 연구 부족과 설총 전기성의 대중화에도 어려움을 드러냈다. 이처럼 설총의 신화적 국면도 초월적 흡인력의 원천이 된다는 점도 공유해야 한다.

IV. 맺음말

한국 최초의 창작설화인 <화왕계>는 설화의 '假傳의'인 요소가 고려시대의 가전체에 영향을 주었으며, 꽃을 의인화하고, 풍자해서 신문왕에게 충고하는 내용이다. 왕을 모란, 간신을 장미, 충신을 백두옹(할미꽃) 등에 비유하여 간신(미인)을 멀리하고 충신(현자)을 가까이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곧 유교 정치 이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동문선』에서는 <飄王書>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한국문학사상 대표적인 풍자작품의 전범이다.

<화왕계>는 한국 우연류 문학의 대표작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독립적으로 다루지 않은 문제점도 있고, <飄王書>로 고정시킨 점도 한계로 보인다. 본고의 제안은 원효전승의 맥락을 강조한 측면이 있지만, 정신유산적 가치-불교와 유교 상보관계 인식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풍자문학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설총 종합적 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본고에서 논의한 쟁점은 가치창조의 인문담론을 중심으로 개괄하여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첫째, 설총은 신문왕과의 놀이 자리에서 <화왕계>를 들려주었다. <화왕계>는 왕을 모란, 간신을 장미, 충신을 백두옹(할미꽃)을 내세워 간접적으로 의도를 비유하여 실현하였다. 설총의 의도를 깨달은 신문왕(외적 화자)은 후세의 임금들에게 寓意的 교훈과 교시가 되도록 글로 남기라고 하명하였

62) '신문왕 이견대와 만파식적'에서 이상적 국가 스토리텔링, 원효 장소성의 가치창조를 제안한 바 있다.

63) 화왕계류 작품은 대체로 유교적 왕도정치(쟁총적 중간론) 이념을 드러내고 있다.

다. 이는 신문왕이 개입적 ‘이바지’의 역할로 이야기관의 한 축으로 호응자 노릇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 문화적 가치에는 우연의 문학성과 정치성 등 소통적 감성이 내재되어 있다.

둘째, <화왕계>는 풍자문학의 한 유형으로 존재하면서도 다양한 후대적 리텔링에 기여하였다. 풍자문학의 시원으로서 <화왕계>의 가치는 풍자원리의 출발점이다. 비유의 원천은 사물의 의인화로 깨달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는 원효의 『대승기신론』의 和靜과 관련된다. 실행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理義’는 연꽃과 같은 불교의 화두를 서사 설법 방식으로 들려주기에서 이면적으로 균형과 태평의 상생을 끌어들이어 납득하기를 통해 실행적 조화에 닿는 논법을 전제하였는데, 이는 화쟁 스토리텔링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신문왕 당대 사유와 정서가 함의되어 있다. 이야기관 ‘이바지’를 주목하였다. 캐릭터 이미지는 맥락에서 역사성이나 생명성에 있다. <화왕계>의 가치는 寓言深志를 내세운 풍자원리의 출발점이다. 비유의 원천은 사물의 의인화와 빗대기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데 있다. 불교의 화두를 서사 설법 방식. 땅설법 형태.으로 들려주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표면적으로 대립과 갈등의 상극지점에 대해 빗대어 설득하기를 통해 화쟁적 중용에 이르는 논법이다.

넷째, 원효-설총의 이야기 방식은 聖俗과 미추가 不二이며 시비의 조화에 있다. 화쟁 스토리텔링으로 설총-신문왕 당대 이야기로 확장한 것이 ‘정호완본 설총론’(설총의 꿈 창작 제목)이다. 정호완본 <설총의 꿈>은 설총의 ‘理義’ 위주 전개가 신문왕 총기의 이바지 노릇과 맞물려 서사가 구성되었다. 정호완은 인문 스토리텔러이다. 정호완본은 구성과 연출 면에서 화쟁 스토리텔링이다. 설총전승은 무대공연화 항목에 재맥락화하여 상품의 여지를 확장해야 한다. 실제 공연을 위한 다각적인 모색 곧 세부 ‘움직임’ 부분이 세밀하게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화왕계> 소스에는 풍자 골격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자 聰明理義.화쟁을 변증법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이다. OSMU에서는 특히 스토리텔링 메시지의 움직임 국면에서 영웅성을 내세우되 웃음과 재미의 빗대기 요소가 강화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점은 <화왕계>의 후대 리텔링 작품들에서도 이념 수용에 매달리다 보니 한계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총사업은 공감과 화쟁 정신 구현에 집중해야 한다. 慶山學을 근거로 공연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설총 팩션 스토리텔링 공모사업, 설총 실경뮤지컬 제작도 대안이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제왕운기』, 『日本書紀』
『조선금석총람』 상
『홍유후선생실기』(경기대)(정호완 역)
『홍유후실기목록』 「동사본전」

2. 단행본

김삼균, 『메타버스』, 플랜비디자인, 2022.
우리역사연구회, 『설총』, 엠엘에스, 2014.
이동근 외, 『삼성현 스토리텔링연구』, 대구대출판부, 2010.
이창식·최상수, 『지역축제와 문화관광』, 박이정, 2012.
정호완, 『설총의 꿈』, 한국문학방송, 2015, 이후 수정본(2022)
정호완 역, 『홍유후선생실기』(원고본), 2022.

3. 연구 논문

김향수, 「신라 유학과 설총의 사상」, 『한국사상과 문화』 23집, 한국사상연구소, 2018.
남동신, 「감산사 아미타불상과 미륵보살상 조상기의 연구」, 『미술자료』 98호, 국립중앙박물관, 2020.
윤주필, 「귀토지설과 화왕계의 대비적 고찰」, 『서사문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 단대출판부, 2013.
이구의, 「설총 화왕계의 구성과 의미」, 『동아인문학』 34집, 동아인문학연구소, 2016.
이종문, 「삼국사기 최치원 열전에 투영된 김부식의 의식의 몇 국면」, 『한문학 연구의 이모저모』, 국학자료원, 2019.
이창식, 「학제간 융합콘텐츠와 스토리텔링마케팅」, 『인문학적 상상력과 융합콘텐츠』, 글누림, 2015.
이창식, 「감성 생활화와 문화치유」, 『공연예술적 감성과 킬러콘텐츠』, 월인, 2016.
이창식, 「안정사 땅설법의 전승과 가치」, 『아시아강원민속학』 37집, 아시아강원민속학회, 2022.

412 신라문화 61 (2022. 12)

조준하, 「설총과 구경에 대한 고찰」, 『한국사상과 문화』 17, 한국사상문화학회, 2002.

■ 논문투고일 : 2022. 10. 31. ■ 심사완료일 : 2022. 12. 7. ■ 게재확정일 : 2022. 12. 7.

■ Abstract

The value and storytelling of Seol-Chong's <Hwawangye>

Lee, Chang Sik*

<Hwawangye>, written by Seol-Chong, was recorded in the 『Samguksagi』, and was based on the legendary image such as the flower of the Grandmother. The King of Sinmun asked Seolchong an interesting story as a game to relieve his boredom, and Seolchong told him <Hwawangye> at the play. <Hwawangye> is Korea's first creative satirical tale that was preached by analogy to the meaning of keeping away the weak and staying close to the faithful. King Sinmun (external narrator), realizing Seol Chong's intentions, played an intervening 'contribution (이바지)' to the extent that he ordered them to be written down as an allegorical lesson to future kings.

The primary value of <Hwawangye>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principle of insinuation (諷諭). The source of the parable lies in the personification of things, leading to enlightenment. It is originated from the narrative method of telling the topic of Buddhism. This is related to Yiyi (理義), that is, Wonhyo's Conflict of Peace (和諍) in the theory of the Great Victory. The secondary value is a method of communication, revealing the great wealth of the royal capital through the method of friendship. On the surface, it is an argument for win-win Confucianism by comparing and persuading the poles of political confrontation and conflict. On the other hand, he is calling for a practical ideological change by attracting and convincing him of balance and peace. This is also an example of the storytelling of the Tang-Sulbub (땅설법).

The story of Wonhyo and Seol-Chong lies in overcoming the political realities of the time and practicing U-Yi-Sim-Zi (寓意深志). The storytelling of the next generation of <Hwawangye> is also not two of the holy and worldliness, and is pursuing harmony between disputes. The storytelling of Seol-Chong -- King Shinmun by utilizing the previous two values is expanded into the story of the time of Seol-Chong - King Shinmun. In Jeong Ho-wan's version of 'Seol-Chong's Dream', the narrative unfolds as Seol-Chong's right 'objection' is intertwined with the role of 'contributory' of the king Shinmun. Of course, based on the satirical framework of <Hwawangye>, it is a method of embodying the spirit of

* Professor, Department of Media and Culture, Semyung University.

win-win and harmony in order to overcome conflicts and divisions. However, I thought that the element of comparison between laughter and fun should be strengthened in the movement phase.

Keyword: Seol-Chong, <Hwawangye>, insinuate exhortation, enlightenment, U-Yi-Sim-Zi